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예방교육전공

조용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성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atisfaction life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on Parenting Attitudes



HANSUNG
UNIVERSITY

2018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중독예방교육전공

조용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성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atisfaction life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on Parenting Attitudes

위 논문을 마약알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 약 알 콜 학 과

중 독 예 방 교 육 전 공

조 용 재

조용재의 마약알콜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 성 대 학 교 행정 대 학 원
마 약 알 콜 학 과
중 독 예 방 교 육 전 공
조 용 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 양육되는 어린 시절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전인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 능력 및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러한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을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정신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종교 활동, 취미 활동, 가정생활의 만족 정도, 한국어 사용 정도를 측정하고, 물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월평균 수입, 사회활동, 업무적 관계, 다문화 지원정책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자율과 애정)과 부정적인 측면(통제와 거부)을 관련 설문을 통하여 해당 여성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측정하였

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만족도 내용과 이와 관련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에 대한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생활 만족도, 취미생활 만족도, 가정경제의 만족도, 사회활동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전반 등에 대해 종교 유무, 직업 유무, 동거 가족의 구성 내용, 월평균 수입 정도에 따라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본인 생활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삶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만족도, 물질적 만족도와 종속변수인 자녀 양육 태도의 하위 영역인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정신적 만족도가 높으면 물질적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양육 태도 중에서 긍정적인 항목인 ‘애정’과 ‘자율’ 사이에는 상호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항목인 ‘거부’와 ‘통제’ 사이에서도 상호 정(+)의 영향을 미치나,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사이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중다선형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애정적 태도’인 경우 물질적 만족도 ‘자율적 태도’는 정신적 만족도, ‘거부적 태도’는 물질적 만족도, ‘통제적 태도’는 정신적 만족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삶의 만족도 중에서도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만족했을 때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공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은 직업 유무 및 월평균 수입 정도에 따라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정해지고, 종교 활동 및 취미 활동 정도에 따라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정해지

며,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태도의 긍정적인 부분은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부분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른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활발한 종교 활동을 통해 기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종교 단체의 노력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과 더불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자녀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연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삶의 만족도, 자녀 양육 태도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5
제 3 절 선행 연구에 대한 비평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론	9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현황	9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및 문제점	61
제 2 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론	2
제 3 절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론	2
제 4 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론	2
제 5 절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이론	23
제 3 장 연구 방법	3
제 1 절 연구 대상	3
제 2 절 조사도구와 측정내용	3
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3

제 4 장 연구 결과	3
제 1 절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73
제 2 절 삶의 만족도 및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현황 분석	93
제 3 절 인식차이 분석	110
1)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114
2) 취미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124
3) 가정경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134
4) 사회활동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154
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164
제 4 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 분석	194
제 5 장 결 론	51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51
제 2 절 정책적 제언	58
참고 문헌	61
[부록] 설문지	66
ABSTRACT	68

표 와 그림 목 차

<표 2-1> 총 주민등록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 수	11
<표 2-2> 국제결혼 및 여성이민자에 대한 세부 현황	13
<표 2-3> 다문화가정의 세대수	15
<표 2-4>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16
<표 2-5> 다문화 가정의 유형 분류표	17
<표 2-6>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거주현황	18
<표 2-7> 외국인 아내의 혼인 및 이혼 현황	23
<표 2-8>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8
<표 2-9> 자녀양육 태도의 하위 영역의 의미	33
<표 4-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8
<표 4-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평균 및 표준편차	40
<표 4-3>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42
<표 4-4> 취미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43
<표 4-5> 가정경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44
<표 4-6> 사회활동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45
<표 4-7> 정신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47
<표 4-8> 물질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48
<표 4-9> 삶의 만족도와 양육태도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49
<표 4-10>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51
<표 4-11>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53
<표 5-1> 정신적 만족도, 정신적 만족도와 자녀양육 태도와 관계	57
<그림 1-1>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추이	4
<그림 2-1> 2015년 다문화 가족 월 소득 현황	2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 문화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커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유교적인 관념이 강했던 결혼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1950년대만 해도 국제결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강했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국 내 국제결혼의 형태가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세 가지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시발점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중심으로 생겨난 기지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과 미군의 결혼이라고 볼 수 있다(김현선, 1977). 전쟁 후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시기였기에 생계유지를 위해 미군과 결혼을 하였지만 미군이 군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동행한 부류와 따로 한국에 남겨진 부류로 나뉘었다. 당시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1982년 8월 개정된 미국의 이민특례법에 의해 많은 인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미국 현지에서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의 차이에 따른 부적응과 주변 사람들의 결혼 전 직업에 대한 멸시로 인해 결혼생활을 불행하게 끝마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자녀들 또한 또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게 된 여성과 자녀들의 생활 또한 부계혈통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여성의 과거 직업으로 인한 심한 차별을 감수해야 했으며, 특히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만들어진 ‘혼혈아’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견뎌야 했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은 고작 혼혈인의 해외입양을 알선하는 것이 전부였다(이성미, 2012).

결론적으로 첫 번째 국제결혼의 결과는 그 당시 미국과 국내의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비합리성으로 인해 그 당사자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꺾박을 받아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것이 그들 자녀의 성장 환경이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부계사회 위주의 사회적 인식과 국적법이라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혼혈인은 그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구성원 자신들과 동질성을 지니는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김아람, 2008).

둘째, 1980년대에 나타난 국제결혼의 형태는 일본 남성과 한국여성의 결혼이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농촌 노총각의 결혼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경제는 최고의 전성기였고, 이를 이용하여 결혼 중개업체는 일본 농촌 총각과 한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주로 우리나라의 가난한 여성들이 부자나라인 일본으로 시집가서 가난한 친정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여성들은 ‘일본으로 팔려온 여자’라는 인식 때문에 재일동포들도 조차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였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로 이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더 떨어지고 자녀 양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셋째, 1990년대 이후에는 국제결혼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해지기는 하였지만,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국제결혼은 그 증가 속도가 2012년을 정점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2017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형태를 세밀히 분석하기 위해 국제결혼이 발생하게 된 주된 요인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보았다. 첫 번째로 ‘빈곤의 여성화’로 인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여성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닌 여성에게 차별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의 참여가 제한되어 여성들이 빈곤하게 되는 ‘빈곤의 여성화’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의 경쟁에서 소외된 가난한 국가가 많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여성이 부를 따라 이주하는 ‘이주의 여성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두 번

제로 빈곤 타파와 삶의 개척을 위한 방법으로 결혼 이주를 선택하는 현상이다.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제결혼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내면에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사회학적 요인으로 한국 내 결혼 시장에서 주변화되는 남성들이 대안적 통로로써 본인의 선택으로 쉽게 결혼할 수 있는 동남아 여성들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이항범, 2012, P.5~10).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의 현황을 보면 2004년에 25,105명을 시작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2010년에 26,274명 정도의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2년 20,637명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를 하여 2016년에는 14,822명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17).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숫자는 감소 추세이지만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결혼하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는 결혼이민자 기준으로 128,518명,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는 197,550명으로 전체 숫자로써는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6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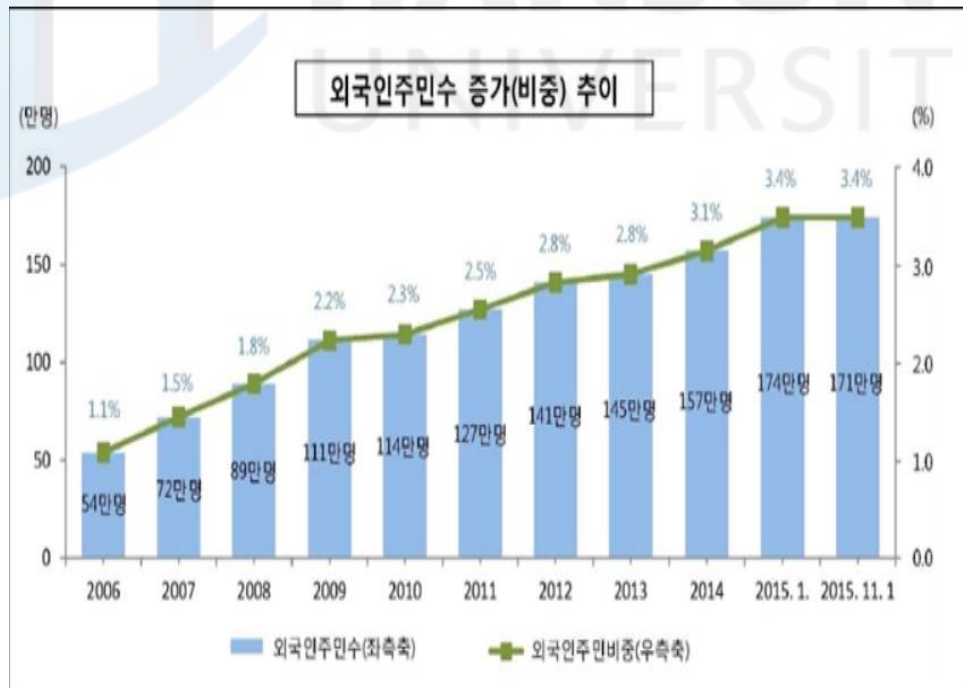
2015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수를 10년 전과 비교하여 보면 3배가 증가한 약 171만 명으로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자치부, 2016 P.6). 171만 명이란 수치를 우리나라 인구 현황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한 개 도인 충청북도 전체 인구인 159만 명 보다 약 12만 명이 더 많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UN에서 전망한 바로는 “향후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결과 2050년에는 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수가 전체인구의 21.3%에 이를 것이다.”라고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예측을 하였다.¹⁾ 이와 같은 전망 뿐만 아니라 <그림 1-1>에 나타난 증가추세를 볼 때 다문화 가정에서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들에 의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했

1) 한국일보, 2009. 1. 21

다. 미국에서의 조직범죄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았겠지만, 기존 메이저 사회와 격리되고 소외된 계층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동 또한 이민 사회에 대한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민 사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관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민사회의 주류를 이룰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다문화 가정이 현재 시점의 안정과 자녀들을 통한 미래의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의 삶이 만족스러워야 하고, 또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성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그 연구 결과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림 1-1> 외국인 주민 수 증가 추이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2016). P.6

제 2 절 연구의 목적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외국인 아내 중심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이루어져 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다른 사회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문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 문제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로 생기는 많은 것이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문제들과 연결된다는 것이다(김지현, 2009).

결혼이주여성들은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고 한국사회에서 언어, 생활, 가치관 등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국사회의 자녀 양육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상황 때문에 부모 역할에 혼란을 느끼고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오성배, 2005).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우리나라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이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을 전담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발달이 지체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사회적 능력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이재분, 2008). 또한, 선행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 가장 힘든 점을 조사한 결과 언어 문제,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자녀 문제가 높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화수, 황상심, 2008).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들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는 달리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습되는 언어영역에 대해 부족함이 있고 이것이 학교 학습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며, 집

단 따돌림 등으로 정서적인 충격도 경험하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이 35.8%이고, 외국계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어 유학하고 싶다는 학생이 75.2%,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가 친구와 선생님과 관계 때문이라는 학생(12세~15세)이 46.7%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일반 학생의 진학률보다 3.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P.440). 이러한 수치로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제가 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 환경에 직접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 약 208천 명 중에 12세 이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83.7%를 차지하는 상황(통계청, 2017)을 볼 때, 12세 이하 아동들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러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해당 교육 및 대책이 소홀히 이루어질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사회에 적응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하여 갈 것이며, 이러한 부적응은 그들에게 피해 의식과 기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게 되어 향후 사회적 통합 및 발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 내의 갈등 및 사회적 차별 등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면 그로 인해 자녀의 양육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자녀 교육 및 성장 환경에서의 부정적 측면의 강화,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주요 활동세대가 되었을 때의 사회문제 발생 등)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은 발달과업의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김화수, 황상심, 2008). 아동이 어린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정서적 발달의 토대를 형성하며, 이 시기의 긍정적 발달이 성장 후에 성격이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Belsky, Rovine, and Taylor, 1984)를 볼 때 가정환경을 비롯한 어머니

니의 양육에 대한 영향은 아동성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시기 동안 발생하는 발달 지연은 역기능적인 가족 기능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고, 전 생애에 걸쳐 개인에게 지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박삼수, 임경희, 200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자녀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제 3 절 선행 연구에 대한 비평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검토해 보았다.

첫째, 가정 내의 갈등과 결혼이주여성이 받는 스트레스, 한국생활에 적응에서의 문제점 등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그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가 있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편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주로 나타나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이혼의 증가 및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보았다(허명옥, 2009). 하지만 결혼 이주여성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가는 삶의 만족도와 연계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영향 분석은 나타나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던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주요 내용이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적인 인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결혼이주여성 가족 구성원의 출산, 양육 등 재생산 역할 및 모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성 확보를 위한 부분은 배제되었다고 보았다. 이들은 ‘이주민’ 자체로 지원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고 어머니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

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지원 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들과 그들 가족의 한국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서 한국사회에 대해 동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주체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이화선, 2015).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 경제적인 생활수준, 복지기관 이용 정도를 선정하여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도가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고 이주여성 개인을 대상으로 여성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및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 수립을 제안하였다(이향범, 2012).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의 입장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이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분석을 하고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오만석, 2011).

다섯째, 결혼이주여성들과 가족관계 특히 자녀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비평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김선희, 2013)가 있으나 결혼이주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정도와 자녀 양육 태도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이기에 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정의 교육환경 조성 및 자녀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개인 문제에 관한 연구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문제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정 내 교육환경, 즉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 성장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육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론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현황

가) 다문화 가정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2006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대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에서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한다.”고 밝혔으며, ‘다문화 가정’을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를 다문화 관련 주요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같이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부처별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어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 “다문화 가족은 「재외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의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제2조의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을 국제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한국인과 이루는 가정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가정은 제외되고 있다(장한업, 2011).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기준이 서로 달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일치하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판단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모호하게 할 수 있는 용어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첫째, 논리적으로 볼 때 다문화 가정은 부모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외국인이라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 논리로 보면 부모가 둘 다 외국인 이거나 한국인인 경우에는 ‘단일문화 가정’으로 지칭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과연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인끼리 사는 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를 가진 부모와 미국 유학 후 미국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단일문화 가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의 국제화, 세계화로 인해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 이다”라는 말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하위문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장한업, 2011).

둘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우리는 단일문화를 가진 단일 민족이다.”라는 관념 때문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무의식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순수함을 지켜내고 다른 것과 섞여 타락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게 되는 것이다.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이 강할수록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은 커진다(박경태, 2008)는 지적은 이런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의 부 적절성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인식에 대해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다문화 가정의 부적절한 요소를 개선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자녀들의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향후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문화 가정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거주 현황을 거주 목적별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변화한 추세를 살펴보면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여 세계화 추진이 선언된 1992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도화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의 경우 국내의 사회적인 현상의 하나인 결혼 적령기 여성들이 농촌 및 저소득층 남자와의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시작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199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왔다. 셋째, 북한 탈주이주민 수도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 이후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꾸준히 증가 폭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주민 수는 2000년도 21만 명이었던 것이 2015년 11월 기준으로 171만 명이 되어 15년간 약 8.3배 증가를 하였고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비율로는 2000년 0.4%에서 2015년 3.4%로 이 또한 약 8.5배 증가하였다. 거주 목적별로 구분한 외국인 주민들의 증가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은 2009년과 비교통계상 2015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2015년 11월 조사와 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에 총 주민수가 약 3만 명의 차이가 있다(행정자치부, 2016, P.6).

<표 2-1> 외국인 주민의 거주목적 유형별 증가 현황표 (단위 : 천명)

구분	년도	2009			2011			2013			2015		
	총 주민수	1,107			1,265			1,446			1,742		
근로 목적	외국인근로자		576	52.0%		553	43.7%		521	36.0%		608	34.9%
	외국국적동포	65%	44	3.9%	61%	84	6.6%	62%	188	13.0%	66%	286	16.4%
	기타		103	9.3%		137	10.9%		181	12.5%		250	14.3%
가족형성 목적	혼인귀화자		41	3.7%		70	5.5%		84	5.8%		92	5.3%
	결혼이민자	25%	126	11.4%	29%	142	11.2%	29%	148	10.2%	26%	147	8.5%
	외국인주민 자녀		108	9.7%		151	11.9%		191	13.2%		208	11.9%
기타 목적	유학생	10%	77	7.0%	10%	87	6.9%	9%	83	5.8%	9%	84	4.8%
	기타귀화자		32	2.9%		41	3.3%		50	3.4%		66	3.8%

출처 : 통계청, 2017

<표 2-1> 내의 ‘근로 목적’의 ‘기타’는 기업투자, 취재,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하며, ‘기타목적’의 ‘기타 귀화자’는 일반귀화, 입양 등을 포함한다(행정자치부, 2016, P.7).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통계자료에서 전체적인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거주 목적별 비중은 근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수가 약 61~66% 정도, 가족 형성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약 25~29% 정도를 유지하면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혼인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 수가 전체 외국인 주민 수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인구의 현황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과 자녀의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서구사회 특히 유럽 사회에서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증가가 오랜 세월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약 2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하여 2015년에는 3.4%인 외국인 주민 비율이 2020년에는 5.0%, 2050년에는 9.2%로 현재 서구 선진국의 이민자 비율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장미혜 외, 2008). 이와 더불어 외국인 주민의 자녀수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09년에 10만 8천 명(전체대비 9.7%)에서 2015년에는 20만 8천 명(전체대비 11.9%)으로 6년 사이에 10만 명(증가율 2.2%)이 증가되었다(통계청, 2017).

반면에 국제결혼 현황을 조사해 보면 국제결혼 건수가 점차 감소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보니 점차로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건수도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총 결혼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이 2010년에는 11%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에는 7%로 점차 감소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결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 교포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2-2> 국제결혼 및 여성이민자에 대한 세부 현황 (단위: 천명)

① 국제결혼 현황

연도별	2008	2010	2012	2014	2016
총 결혼	328	326	327	306	282
국제결혼	36	34	28	23	21
국제결혼 비율	11%	11%	9%	8%	7%

② 국제결혼 중 여성이민자 현황

연도별	2008	2010	2012	2014	2016
국제결혼	36	34	28	23	21
한국남자+외국인여자	28	26	21	16	15
여성 비율	78%	76%	75%	70%	71%

③ 여성이민자 중 중국 및 동남아 국적 현황

연도별	2008	2010	2012	2014	2016
한국남자+외국인여자	28	26	21	16	15
중국	13	10	7	5	4
중국 비율	46%	38%	33%	31%	27%
동남아	11	13	10	7	7
동남아 비율	41%	50%	47%	43%	50%

출처 : 통계청, 2017

그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방문 취업제도’가 2007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본 제도는 외국 국적 동포의 고국 방문과 취업을 쉽게 하고자 “방문취업 사증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사증으로 한번 입국하여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 기간 내에는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 할 수 있다”라는 내용(법무부, 2017, P.1)을 담고 있어서 취

업을 위한 국제결혼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민자의 약 70~80%가 여성인 것으로 보아 다문화 가정의 대부분이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외국인 여성의 약 50% 정도가 동남아 여성이라는 것도 <표 2-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절대적인 숫자는 2008년 1만 1천 명에서 2016년 7천 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위와 같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점차 감소해 가는 현상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로, 2011년 소위 ‘묻지마 결혼’과 사기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 문화 건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부터 5년 동안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한때 난립한 국제결혼 중개업소가 정부의 등록기준 강화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²⁾

두 번째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차별과 자녀 교육의 취약함,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위험성 등 실생활과 관련된 어려움 등에 대해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단체들의 활동 및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체적인 SNS 활동 등을 통해 동남아 현지에 있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고,

세 번째로,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담가정 중에 아내가 결혼이주여성인 다문화 가정 중에 37.9%(362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955건 중 결혼이주여성의 방문건수는 343건(35.9%)인 반면에, 한국인 남편의 방문건수는 612건(64.1%)으로 한국인 남편의 이혼상담 건수가 2013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 P.3). 국제결혼으로 인한 내국인 남성의 피해 상황은 과거에는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도외시 되었지만 최근 그 피해실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특히나 동남아 출신의 여성인 경우 결혼 후 출산한 자녀를 데리고 무단가출을 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주고 친정인 모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가 증가(김지영, 안성훈, 2014)하

2) 매일신문, “줄어드는 동남아 신부, 올바른 국제결혼문화 정착 계기 삼자”, 2016.3.6

면서 한국인 남편도 동남아 여성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치적으로는 국제결혼의 비율과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표 2-3>과 <표 2-4>에서 보듯이 다문화 가정 세대와 자녀들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에서의 결혼 및 기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에서 자녀 출산으로 인한 증가로 예측할 수 있다.

<표 2-4>를 통하여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6년 사이에 약 10만 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리고 국적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동남아 국적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연령별 현황을 볼 때 전체적으로 12세 이하의 연령대의 자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으로 분석해 보면, 인성교육이 필요한 연령인 6세 이하와 초등학생에 재학 중인 연령이 12세까지의 아동들에 대한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 미래의 안정된 다문화 사회를 위해 필요하며,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한 삶의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정책 수립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3> 다문화가정의 세대수 (단위: 세대)

년도	세대수	증감비율
2009	186,566	
2010	217,094	16%
2011	221,872	2%
2012	256,891	16%
2013	270,112	5%
2014	284,735	5%
2015	297,021	4%

출처 : 통계청, 2017

<표 2-4>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단위: 천명)

① 다문화 가정 자녀 연령별 증감 현황

구분	6세이하		7세 ~ 12세		13세 ~ 15세		16세 ~ 18세		합계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2009	64		29		8		7		108	
2011	94	47%	38	30%	12	50%	8	14%	151	40%
2013	117	24%	45	20%	18	53%	11	38%	191	26%
2015	118	1%	56	24%	19	3%	15	35%	208	9%

② 다문화가정 자녀중 동남아 국적 현황

구분	2009			2011			2013			2015		
	전체	동남아	비율	전체	동남아	비율	전체	동남아	비율	전체	동남아	비율
합계	108	38	35%	151	55	36%	191	77	40%	208	90	43%

③ 동남아 국적의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증감 현황

구분	6세이하		7세 ~ 12세		13세 ~ 15세		16세 ~ 18세		합계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전체	증감
2009	28		6		2		1		38	
2011	43	54%	8	33%	2	0%	2	100%	55	45%
2013	60	40%	12	50%	3	50%	2	0%	77	40%
2015	64	7%	20	67%	4	33%	2	0%	90	17%

출처 : 통계청, 2017

2) 다문화 가정의 유형 및 문제점

가) 다문화 가정의 유형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법적으로 정의한다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정한 것처럼 결혼 이주 가정만 해당이 되겠지만 앞에서 정의한 다문화 가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 구성 특징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2-5>와 같다(연민아, 2012, P.7).

<표 2-5> 다문화 가정의 유형 분류표

구분	유형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한국에서 결혼	한국에서 출생, 부 (한국인), 모 (외국인)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한국에서 결혼	한국에서 출생, 부 (외국인), 모 (한국인)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 남녀 한국에서 결혼	한국에서 출생, 부모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남녀 자국에서 결혼한 후 한국 이주	외국인의 자국에서 출생, 부 (외국인), 모 (외국인)
새터민 가정	한국인 남성과 탈북자 여성 한국에서 결혼	한국에서 출생, 부모 (한국인)
	한국인 여성과 탈북자 남성 한국에서 결혼	한국에서 출생, 부모 (한국인)
	탈북자 남녀, 북한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 이주	북한에서 출생, 부모 (한국인)

첫 번째로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다. 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가정은 1990년대에 농촌 총각 문제해결을 위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도시의 저소득층 근로자 또는 직장인들도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종사자들의 국제결혼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비율을 보면 2008년에는 농림어업 종사자 중 외국인 아내의 비율이 38.3%였는데 2016년에는 17.1%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통계청, 2017). 이와 더불어 <표 2-6>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자의 거주현황은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약 4만2천 명(28%), 6대 광역시가 약 3만2천 명(21%), 서울특별시가 약 2만7천 명(18%) 순으로 나타나면서 전체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로 농촌에

서 거주하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공단이 많은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2-6> 지역별 결혼이민자의 거주현황 (단위: 천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특별시	30.8	29.8	29.0	28.2	27.5
6대광역시	29.3	30.4	30.8	31.5	32.1
경기도	40.2	41.3	40.9	41.4	41.8
강원도	3.9	3.8	3.8	3.7	3.6
충청도	12.3	12.6	12.6	12.7	12.8
전라도	12.7	12.7	12.7	12.7	12.8
경상도	16.8	17.2	17.3	17.5	17.7
제주도	1.8	1.9	2.1	2.2	2.3

출처 : 통계청, 2017

두 번째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피 업종에 대한 국내 근로자의 회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생산직이나 기술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과 함께 국내로 이주하거나 국내에서 가정을 꾸밈으로써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같은 업종에 근무한다는 동일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정 지역에 특화된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으로 새터민 가정이라고도 하는데 ‘새터민’은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긍정적·미래지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2005년부터 사용했다. 통일부는 공식적인 용어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으로는 ‘새터민’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

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현재까지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 조사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제안되고 시행되었지만 크게 나누어 문화적인 차이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 자녀의 교육으로 인한 문제, 사회적 인식의 편견으로 인한 문제, 이혼으로 인한 문제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김현옥, 2012).

첫 번째로 문화적인 차이와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같은 한국인끼리의 결혼에서도 자란 환경이 다른 경우 결혼을 했을 때 생활 습관이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이혼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국적과 언어까지 다르고 심지어 국민 전체적으로 흐르는 정서적 공감대까지 다른 전혀 생소한 문화 환경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와 몸에 밴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 남편뿐인데,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남자의 집안에 여자가 맞추어야 한다는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맞추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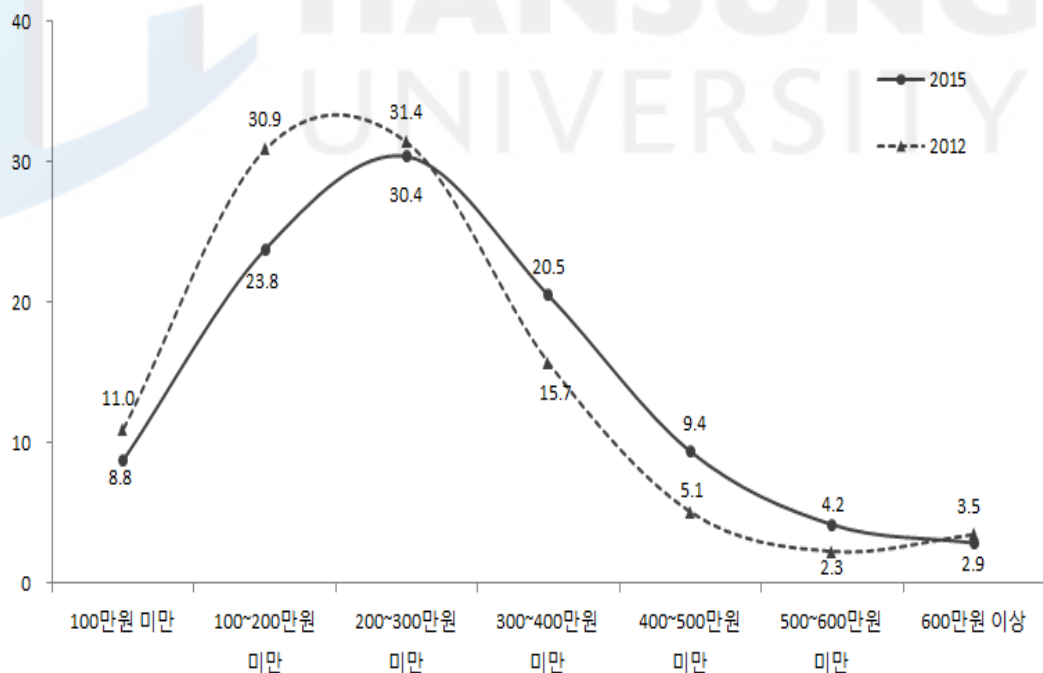
이러한 사고방식은 남편에 국한되지 않고 시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회 일반적인 인식 또한 그러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소외감이 지나쳐 좌절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더욱이 언어 소통에서의 어려움이 이러한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대부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이러한 갈등의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은

농어업 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과 결혼을 했고, 대부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많은 결혼이 주여성에게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직장 내에서 느끼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사회에서 느끼는 편견 등으로 인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에서 보면 2015년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미만이 63%이고 300만 원 이상이 37%이다. 200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보았을 때 300만 원 미만이 73.3%이고 300만 원 이상이 26.7%인 것과 비교해 보면 월평균 소득이 증가했지만 2017년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에 따르면 그 기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2년에는 96.8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전반적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의 증가가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켰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2-2> 2015년 다문화 가족 월 소득 현황



출처: 여성가족부, 2015 , P.93

세 번째로는 자녀교육으로 인한 문제로 다문화 형성과정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서 대부분 전문가가 지적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이경수, 2011)

첫째,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 문제이다. 유아기 때는 어머니로부터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결혼이주여성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적이다 보니 학교에 진학해서는 학습 부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둘째, 정체성의 혼란 문제이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기에 자녀의 정체성 혼란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러한 정체성 혼란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까지 이어진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제되고 소외자로 인식되어 더 큰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 문제이다. 또래와의 관계는 성장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한국인권신문(2012.9.21) 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학교폭력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우리와는 다른 외모와 서툰 한국어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현 마을 공동체교육연구소장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은 도시보다는 군, 읍, 면 단위 학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폭력으로 괴로워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사가 그 역할을 소홀히 하고 방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인식의 편견으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단순 취업을 위한 노동자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유학생과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인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이용재, 2012). 그러한 구조로 인해 결혼이주여성은 사회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지원 정책과 지원 서비스도 자녀 양육자와 부양자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한국국적취득 심사기준(2016년 6월)에 따르면, 국적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약 19개월 이상이지만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약 10개월 이상으로 단축이 되며, 이혼 시에도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부분에서조차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 구성에 필요한 도구처럼 인식되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인식 또한 우리보다 낮은 계급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으로 인한 문제이다.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 속에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이해와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가정 내에서는 다문화 가정 남편들의 음주와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이어지고 되어,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증가하게 되었다(이향범, 2012).

<표2-7>을 보면 2016년 혼인 건수는 14,822건으로 2010년에 비해 56%가 줄어들었지만 이혼 건수는 오히려 8% 정도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혼이 가져오는 추가적인 문제는 역시 자녀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양육권을 갖던 한국인 남편이 양육권을 갖던 자녀에게는 성장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인지되고 있는 새롭게 대두되는 이혼 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요즘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의 남성과 다시 혼인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체계적인 조사에 의한 수치는 아니지만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현장에서 종사하는 관련자(태백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의 면담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표 2-7> 외국인 아내의 혼인 및 이혼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혼인(명)	26,274	22,265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이혼(명)	7,852	8,349	7,878	7,588	6,998	5,743	5,610
이혼율	29.9%	37.5%	38.2%	41.5%	43.3%	39.1%	37.9%

출처 : 통계청, 2017

제 2 절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론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11월 기준으로 17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3.4%인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를 보면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외국인의 이민 역사는 약 20~30여 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다문화 사회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국가와 비교해 보면 외국인 주민 비율에서 유럽 국가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며 (독일 14.6%, 스페인 14%, 영국 11.3%, 프랑스 11.1%, ; 2015년 국가별 이민자 수), 이민의 역사도 유럽 국가들이 1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되는 등 다문화사회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사회화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및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오만석, 2011). 다문화 사회화의 진행속도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회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요소들을 찾아 미리 대

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통제 속에 수행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찍이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다문화 사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행됐는데, 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 그 특성과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제시한 자료(장미혜 외, 2008)를 통해 다문화 사회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단계’로 외국인 이주민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이 증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혼란,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 행동의 다양성이나 가치관의 상이에 따른 규범의식의 저하 등의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두 번째 단계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단계’로 이주자들이 가족을 형성하고 출신 국가 별로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문화 가정 내 가족 구성원 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유대관계의 약화, 언어 장벽으로 인한 가정 내 의사소통 기능의 약화,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 현상, 소수의 인종공동체의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빈곤의 계층화, 인종에 따른 소득 격차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등의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세 번째 단계는 ‘다문화 사회의 정착단계’로 다문화 가정 내에서 2세가 사회진출을 하면서 이주민공동체를 재생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이주민 2세의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 낮은 교육 수준,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의 증대, 이주민 2세의 주류사회 문화에 대한 혼란과 갈등, 이들 집단의 범죄 및 실업 문제의 가시화, 인종 간 사회적 마찰 증대,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의 표면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가중 등이 예상된다(장미혜 외, 2008).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들은 단지 예상일 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문화 사회로 진행할 때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별로 대안을 마련하여 나간다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다문화 사회로

의 이행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장미혜 외, 2008). 성공적으로 이행할 경우, 사회적 수준에서 다문화적 차이와 포용성의 증가, 인종적 차이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의 실현,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적 권리의 존중과 상호존중 문화의 정착, 서로 다른 문화와 다양한 인종들 간의 신뢰 증대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가족적 수준에서는 가부장적 한국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정착, 가족 내에서 이중 언어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통한 전 세계적 의사소통 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며, 개인적 수준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의 혼돈이 없는 심리적 안정,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수용 등의 현상이 예측된다.

반면에 성공적 이행이 실패할 경우, 사회적 수준에서는 사회적 응집력의 약화, 이민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 규범 등에 동화되지 못하고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며, 타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사회가 예상된다. 가족적 수준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 내 폭력 증대,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의사소통 단절,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실패, 다문화 가정의 빈곤층 전락으로 인한 집단적 문제의 야기 등의 현상이 예상되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다른 인종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타자화, 주류집단의 배제와 차별적 태도로 인한 소수 인종집단의 소외감 심화 등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는 다문화 사회 진입의 초기 단계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해 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유럽 사회가 이미 겪어온 갈등과 혼란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정책의 수행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 3 절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기존 국가에서도 그러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효율적으로 공존하며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이주 외국인들이 기존 사회 체계에 불만을 가지는 이질적인 소수 집단으로 남게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 특히, 현재 다문화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인식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하고 점차 우리 사회 내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실패했을 경우의 과장효과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이러한 부분에 근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사회로의 성공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그러한 정책을 따르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국가 차원의 다문화 정책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으며,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들이 어떻게 수립되고 진행되는지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예로 살펴보았다.

2008년 3월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다문화 정책 위원회가 수립하고 제시한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기본계획은 2010년~2012년 까지 3년간, 2차 기본계획은 2013년~2017년 까지 5년간, 3차 기본계획은 2018년~2022년 까지 5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가고 있다. 또한, 본 정책의 기초 통계자료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2015년에 실시되었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에 걸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진행되어

온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 그리고 시대적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표 2-8>에서 보듯이 1차 계획에서는 주로 정책추진의 토대를 구축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입국하게 되는 초기 단계부터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결혼의 건전화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대국가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초기 정착단계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방문 교육, 통번역 지원)를 확대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9년 100개소에서 2012년에는 206개소로 증설하였다. 자녀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보육료 지원 및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적인 인식 제고 측면에서는 다문화시설 종사자, 공무원, 교원 등에게 다문화 이해 교육이 실시되었고, 다양한 매체의 광고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이 추진되었다.

1차 계획의 주된 포인트는 초기 정착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및 지원을 위주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 부분에서는 가정 내에서 불평등한 관계가 조성되고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이 저하됨으로써 자녀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언어능력의 발달 저하가 학습부진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정착이 되지 못했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하였으나 역차별 논란, 외국인 혐오증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야기되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변화 부분을 인지하고 변화된 부분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재구성하고 동시에 위와 같은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다문화 인구 측면에서 보면 국제결혼 비율은 안정화가 되어가지만 다문화 가족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결혼 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정착 보다는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자녀가 성장하여 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고, 가정 내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확산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추진되었다.

<표2-8>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구분	1차 계획 (2010~2012)	2차 계획 (2013~2015)
목표	·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
추진 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국제결혼 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안정적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정책추진 체계 정비
구분	3차 계획 (2018 ~ 2022)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추진 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 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출처 : 여성가족부, 2017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1차와 유사하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 부분이 강화되었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회참여 확대 등의 정책을 수행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종 차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다문화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 1, 2차 기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원대상의 성격이 바뀌고 그에 대한 필요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단기적인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인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원의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단계가 되어 이를 반영하여 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되어 진행됐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문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2022년까지 추진되는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절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론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면 "우리 사회에서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하고, 가정 내에서도 배우자, 자녀와 함께 결혼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간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만족한다는 기준은 객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개념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을 하지만 마음의 평안함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수도 있다. 주로 객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소득수준, 주거환경, 사회복지 서비스이용, 문화생활 여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 삶의 만족도 측정은 각 개인의 특성 및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항목을 정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삶의 만족도’를 ‘각자 개인의 기준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다(Shin and Johnson, 1978). 다시 말하면, 개인은 삶의 여러 측면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삶의 만족도를 인식하는 것이다(김한성, 이유신, 2013).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을 비롯하여(특히 자녀)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념(김지영, 민하영, 2010)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1) 경제적 생활 수준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 중에서 동남아 여성들의 많은 인원이 모국에서의 빈곤이라는 경제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중 78%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했다고 답했는데, 44%가 결혼한 후에 알고 있던 경제 현실과 너무 달라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남주, 2009).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자가 할 일은 돈 버는 일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을 국적별로 분류해 보면 미주지역 이주여성들은 36.2%만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나머지 63.8%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였다. 반면에 동남아 이주 여성인 베트남은 67.6%, 필리핀은 68.9%, 기타 동남아시아는 66.6%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P.93). 이러한 현상은 결혼이주여성들 자국의 문화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시아 지역은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여성이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남성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가야한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기준인 월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100만 원 미만 가정의 67.6%가 ‘그렇다’라고 답변했고, 국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2년 미만의 가정에서 76.9%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유추하여 볼 때, 국내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일수록 남자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한국어 사용능력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회생활에 있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내 느낌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의사 전달의 주요 수단인 언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 사용 능력은 의사소통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생활을 하게 되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생활에서는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일차적인 어려움은 문화 차이와 언어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한족 부인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오남, 2006).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통계자료에서도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다는 동남아 여성의 비율이 다른 지역의 여성들 보다 약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P.127). 의사소통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자의 의사소통 효율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김진희, 박옥임, 2008).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아동기에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가정 내의 충분한 모국어(한국어) 습득 환경과 주된 양육자인 어머니의 사용언어 및 의사소통 유형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송선진, 2007).

3) 사회적 연결망 (취미 활동 등 사회적 활동)

사람들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정신적 고립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사회문제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연결망의 다양한 요소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내가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하고 상의할 만한 곳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중요한 사회 자본으로 이주자의 정신건강, 사회 적응 및 수용사회에서의 성공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권구영, 박근우, 2007; 이민아, 2010).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연결망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이민아, 2010; 장지혜, 설동훈, 2006).

제 5 절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이론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유지해야 하는 역할, 자녀를 보호하여야 하는 역할,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자녀 양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는 부모의 환경이나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최초의 학자는 P. M. Symonds이다. 그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거부적-과보호적, 우세적-복종적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나 부모의 양육 태도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설명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표적인 양육 태도 모형으로는 E. S. Schaefer의 연구가 알려져 있는데, 그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고, 분류된 각 태도별로 의미를 정의해 보면 <표 2-9>와 같다.

<표 2-9> 자녀양육 태도의 하위 영역의 의미 (김선희, 2013, P.12)

구분	의미
애정적 태도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하는 태도
자율적 태도	자녀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태도
통제적 태도	자녀의 행동에 많은 규율을 정해 놓고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자녀 행동에 많은 제약을 두는 태도
거부적 태도	자녀에 대해 애정이 부족하고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비난하는 태도

부모의 정서적 상태 및 행동이 자녀 양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박효주(201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엄마가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서 아빠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빠는 ‘자율적 태도’에서 엄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교육에 있어 여전히 엄마가 아빠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자녀의 정서적 지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엄마의 애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감정의 조절 및 충동의 억제에 잘 되고 교사와의 관계가 높았으며,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기 또래와의 관계가 어렵고 정서적 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 정서 이용과 교사와의 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제적 태도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아빠의 거부적 태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자기의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정서적 지능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여 가정을 이루고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등학교 이하 (6세~12세)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위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7명, 지방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33명을 대상으로 총 70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제 2 절 조사 도구와 측정내용

1)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배경 및 가족관계에서의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삶의 만족도 정도에 따라 자녀 양육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관련 문헌 조사와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였고, 실질적인 검증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한 10개 문항, 독립변수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항목 4개 문항,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항목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종속변수인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항목 중 애정적 태도 관련 3개 문항, 자율적 태도 관련 3개 문항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항목 중 거부적 태도 관련 3개 문항, 통제적 태도 관련 3개 문항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측정 내용

가) 인구 사회학적 변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인 배경인 인구 사회학적 변인으로 나이, 자녀 수, 가족의 구성, 한국 내 거주 기간, 경제적 수준, 종교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나이는 한국 나이로 조사하였고, 남편과의 연령 차이로 의한 의미 있는 결과를 예상하여 남편의 나이도 같이 조사하였다. 자녀의 수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자녀의 수이고, 가족의 구성내용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거주 기간은 구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결혼이주여성 본인이 가정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와 직업의 종류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신적인 부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고려되어 종교의 유무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나) 삶의 만족도

정신적인 삶의 만족도는 종교 활동, 취미 활동, 가정생활, 한국말 사용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삶의 만족도는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월수입의 부족 정도, 경제 활동이 가정에서 최우선 정도, 한국 사람에게 입은 피해 정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족 정도 등에 대해 측정하였다.

다) 자녀 양육 태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Schaefer. E. S (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수정한 것으로 이 중 하위요소인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 거부적 태도로 구분한 것을 이용하였다. 긍정적인 자녀 양육 태도는 자녀를 자주 칭찬하는지, 자녀와의 시간이 행복한지와 같은 자녀에 대한 애정 표현 정도를 나타내는 애정적 태도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한 것에

지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자율성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자율적 태도를 측정하였고, 부정적인 자녀 양육 태도는 자녀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지, 자녀로 인해 화가 나는지와 같은 거부적 성향을 나타내는 거부적 태도와 부모에 절대복종과 같은 통제적 성향을 나타내는 통제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검증을 위해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독립 변수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값 비교를 하였다. 평균값 비교를 위해서는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종교 유무, 직업 유무, 연령대, 출신 국가, 남편 연령대, 자녀 수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응답자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해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 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도와 자녀의 양육 태도 간의 관련성을 밝혀내고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삶의 만족도의 정신적 지표 및 물질적 지표는 '1'은 가장 불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5'는 가장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 양육 태도의 긍정적인 지표인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에서 '1'은 가장 애정적이거나 자율적이 아닌 것이고, '5'가 가장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녀 양육 태도의 부정적인 지표인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서는 '1'은 가장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 아닌 것이고, '5'가 가장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것을 나타낸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설문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표4-1>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나이는 30대(57.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0대(20.0%)로 30대 이하가 전체의 77.1%를 차지하는 반면에 남편의 나이는 50대 이상(52.9%), 40대(38.6%)로 40대 이상이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다.

자녀수는 2명(45.7%)이 가장 많고, 1명(41.4%)의 순서이며 2명 이하가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있고, 4명 이상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성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54.3%로 가장 많고 부부와 자녀와 남편의 가족으로 구성된 경우가 40.0%로 조사되었다.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74.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필리핀이 8.6% 그 외 조선족,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에서는 5년 이상(78.6%)이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17.1%), 1년 이상 3년 미만 (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 따른 분류에서는 직장생활(61.4%), 직접 장사(7.1%)처럼 직업이 있는 경우가 68.6%로 전업주부보다는 경제활동을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의 종류에서는 회사근무(27.1%), 기타(24.3%), 음식점 근무(14.3%)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기타에는 강사 또는 번역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정 전체의 월수입은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이 30.0%로 가장 많고, 100만 원~200만 원 미만이 25.7%, 100만 원 미만이 17.1%, 300만 원~ 400만 원 미만도 17.1%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다’와 ‘대충 알고 있다’가 모두 42.9%로 지원제도를 조금

이라도 알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85.8%로 조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종교에서는 기독교(48.6%), 불교(12.9%), 천주교(10%) 순서이며, 종교가 없음도 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I

항목	구분	빈도 (명)	비율 (%)
본인 나이	20대	14	20.0
	30대	40	57.1
	40대	12	17.1
	50대 이상	4	5.7
배우자 나이	20대	1	1.4
	30대	5	7.1
	40대	27	38.6
	50대 이상	37	52.9
자녀수	1명	29	41.4
	2명	32	45.7
	3명	8	11.4
	4명 이상	1	1.4
가족 형태	부부+자녀	38	54.3
	부부+자녀+남편가족	28	40.0
	본인+자녀(남편과 이혼)	2	2.9
	기타	2	2.9
국적	조선족	1	1.4
	중국	3	4.3
	일본	2	2.9
	베트남	52	74.3
	필리핀	6	8.6
	기타	6	8.6

<표 4-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II

항목	구분	빈도 (명)	비율 (%)
거주 기간	1년 ~ 3년 미만	3	4.3
	3년 ~ 5년 미만	12	17.1
	5년 이상	55	78.6
직업 유무	직업 있음	48	68.6
	직업 없음	22	31.4
직업 종류	음식점	10	14.3
	회사	19	27.1
	가사도우미	2	2.9
	기타	17	24.3
	무직	22	31.4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2	17.1
	100 ~ 200만원 미만	18	25.7
	200 ~ 300만원 미만	21	30.0
	300 ~ 400만원 미만	12	17.1
	400만원 이상	7	10.0
다문화 가정 지원제도	잘 알고 있다	30	42.9
	대충 알고 있다	30	42.9
	모르고 있다	10	14.3
종교	불교	9	12.9
	기독교	34	48.6
	천주교	7	10.0
	없음	19	27.1
	기타	1	1.4

제 2 절 삶의 만족도 및 자녀 양육태도에 대한 현황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한 8가지 항목과 자녀의 양육 태도를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측면에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12가지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평균값을 조사해 보았다.

<표 4-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항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정신적 만족도	3.44	.456
	물질적 만족도	3.22	.507
자녀 양육 태도	애정적 측면	3.94	.615
	자율적 측면	3.67	.586
	거부적 측면	2.97	.661
	통제적 측면	2.97	.766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에 대한 평균값은 설문조사 결과인 ‘1~5’에 대한 것으로 ‘보통이다’의 값인 ‘3’보다 크면 만족한 경우이고 ‘3’보다 작으면 만족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 결혼 이주여성이 정신적인 부분(3.44)보다는 물질적인 부분(3.22)에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양육 태도 조사 내용에 대한 평균값은 설문조사 결과인 ‘1~5’에 대한 것으로 ‘보통이다’의 값인 ‘3’을 기준으로 할 때, 긍정적인 측면인 애정적 측면과 자율적 측면에서는 ‘3’ 보다 큰 경우는 긍정적인 경우이고 ‘3’ 보다 작으면 부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인 거부적 측면과 통제적 측면에서는 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이므로 ‘3’ 보다 큰 경우는 부정적인 경우이고 ‘3’보다 작으면 긍정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이번 연구의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응한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 양육 태도는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인식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삶의 만족도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종속변수인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몇 가지 독립변수들을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 추출하였다. 추출된 변수는 정신적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가정생활의 만족도, 취미 생활의 만족도이고, 물질적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가정 경제의 만족도, 사회생활의 만족도이다. 이렇게 추출된 독립변수 항목이 설문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즉, 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독립변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평균값 비교를 하였다. 평균값 비교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평균값 비교는 소수 정보의 부정확한 반영 및 이로 인한 측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재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자녀 수의 경우는 ‘1명’과 ‘2명 이상’으로, 가족 형태의 경우는 ‘부부 + 자녀’, ‘부부 + 자녀 + 기타 식구’로, 거주 기간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으로 재분류 하였다.

1)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3>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녀 수, 가족 형태, 직업 유무, 종교 유무에 따라 가정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국내 거주기간과 월평균 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1명 있을 때가 여러 명 있는 경우보다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형태도 부부와 자녀만 사는 형태가 만족도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단, 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가족 중에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또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우의 수가 적어 전체 통계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직업의 유무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더 좋았고 종교의 경우에는 종교가 있는 경우에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항목	구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녀수	1명	29	3.66	.769	2.29	.025
	2명 이상	41	3.22	.791		
가족 형태	부부+자녀	38	3.82	.730	5.77	.000
	부부+자녀+기타식구	32	2.91	.588		
거주 기간	5년 미만	21	3.62	.865	1.502	.138
	5년 이상	49	3.31	.769		
직업	있음	48	3.23	.722	-2.92	.005
	없음	22	3.82	.907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1	3.18	.405	1.240	.303
	100 ~ 200만원 미만	19	3.26	.653		
	200 ~ 300만원 미만	21	3.38	.498		
	300 ~ 400만원 미만	12	3.83	1.267		
	400만원 이상	7	3.57	1.397		
종교	있음	51	3.53	.902	2.58	.012
	없음	19	3.11	.459		

2) 취미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혼 이주 여성이 취미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4>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직업 유무, 월수입, 종교 유무에 따라 취미 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자녀 수, 가족 형태, 국내 거주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가 취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좋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장 생활을 통해 다른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가운

데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취미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데 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인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4-4> 취미 생활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항목	구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녀수	1명	29	3.66	.897	-.505	.615
	2명 이상	41	3.76	.767		
가족 형태	부부+자녀	38	3.61	.855	-1.23	.223
	부부+자녀+기타가족	32	3.84	.767		
거주 기간	5년 미만	21	3.67	.913	-.316	.753
	5년 이상	49	3.73	.785		
직업	있음	48	3.85	.461	2.17	.034
	없음	22	3.41	1.260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1	3.55	.820	7.56	.000
	100 ~ 200만원 미만	19	3.63	.597		
	200 ~ 300만원 미만	21	3.24	.831		
	300 ~ 400만원 미만	12	4.42	.515		
	400만원 이상	7	4.43	.535		
종교	있음	51	3.63	.916	-2.02	.047
	없음	19	3.95	.405		

3) 가정경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혼 이주 여성이 가정 경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5>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거주기간, 직업 유무, 월수입에 따라 가정경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5% 유의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자녀 수, 가족 형태, 종교 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5년 이상인 경우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5년 이상의 경우는 양육하는 자녀로 인한 경제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보다 가정생활에 드는 비용에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며, 5년 미만의 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실제 월 수입이 많지 않다고 해도 본국에서 느꼈던 경제적 빈곤감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높으리라 예측된다.

<표 4-5> 가정경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항목	구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녀수	1명	29	2.86	1.125	-1.02	.310
	2명 이상	41	3.17	1.321		
가족 형태	부부+자녀	38	3.05	1.207	.071	.944
	부부+자녀+기타가족	32	3.03	1.307		
거주 기간	5년 미만	21	3.52	1.030	2.17	.033
	5년 이상	49	2.84	1.280		
직업	있음	48	2.73	1.300	-3.56	.001
	없음	22	3.68	.894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1	1.09	.302	196.74	.000
	100 ~ 200만원 미만	19	2.16	.375		
	200 ~ 300만원 미만	21	3.62	.498		
	300 ~ 400만원 미만	12	4.00	.000		
	400만원 이상	7	5.00	.000		
종교	있음	51	3.02	1.273	-.097	.923
	없음	19	3.05	1.268		

4) 사회활동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혼 이주 여성이 사회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6>과 같다. 여기서 사회활동이란 직장생활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제도 및 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등 포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직업 유무, 월수입, 종교 유무에 따라 가정경제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자녀 수, 가족 형태, 거주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업이 있는 경우가 직업이 없는 경우보다 사회활동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직업이 있는 경우 직장 내에서 받는 차별이나 업무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만족도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월수입이 많을수록 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온 것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예측되며, 종교가 있는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종교 활동 장소도 하나의 사회생활의 장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4-6> 사회활동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항목	구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녀수	1명	29	3.10	.939	.54	.588
	2명 이상	41	2.98	.987		
가족 형태	부부+자녀	38	3.00	.959	-.26	.789
	부부+자녀+기타가족	32	3.06	.982		
거주 기간	5년 미만	21	3.10	1.044	.377	.707
	5년 이상	49	3.00	.935		
직업	있음	48	2.88	.914	-2.02	.048
	없음	22	3.36	1.002		
월	100만원 미만	11	2.09	.302	22.34	.000

수입	100 ~ 200만원 미만	19	2.74	.653		
	200 ~ 300만원 미만	21	2.76	.889		
	300 ~ 400만원 미만	12	4.17	.389		
	400만원 이상	7	4.14	.378		
종교	있음	51	3.22	.945	2.79	.007
	없음	19	2.53	.841		

5)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앞에서는 독립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어떠한 요소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 보았다. 이제는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삶의 만족도 분야를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 두 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부분에서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

가) 정신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혼 이주 여성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7>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자녀 수, 가족 형태, 월수입, 종교 유무에 따라 정신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거주기간, 직업 유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자녀가 1명으로 부부와 자녀만이 사는 가족 형태이고, 종교가 있으면서 월수입이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가장 정신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정신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항목	구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녀수	1명	29	3.54	.401	1.77	.080
	2명 이상	41	3.35	.464		
가족 형태	부부+자녀	38	3.57	.407	3.03	.003
	부부+자녀+기타가족	32	3.26	.440		
거주 기간	5년 미만	21	3.44	.402	.102	.919
	5년 이상	49	3.43	.468		
직업	있음	48	3.47	.426	1.04	.303
	없음	22	3.35	.516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1	3.18	.537	7.85	.000
	100 ~ 200만원 미만	19	3.49	.282		
	200 ~ 300만원 미만	21	3.19	.344		
	300 ~ 400만원 미만	12	3.75	.369		
	400만원 이상	7	3.89	.497		
종교	있음	51	3.52	.452	2.63	.011
	없음	19	3.21	.393		

나) 물질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혼 이주 여성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는 정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4-8>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월수입 항목에서만 물질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10%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물질적 만족도에 대한 인식차이

항목	구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자녀수	1명	29	3.20	.380	-.130	.897
	2명 이상	34	3.21	.512		
가족 형태	부부+자녀	38	3.25	.454	.402	.689
	부부+자녀+기타가족	32	3.20	.522		
거주 기간	5년 미만	21	3.27	.460	.510	.611
	5년 이상	49	3.21	.496		
직업	있음	48	3.20	.563	-.564	.575
	없음	22	3.26	.366		
월 수입	100만원 미만	11	2.61	.360	27.860	.000
	100 ~ 200만원 미만	19	3.04	.292		
	200 ~ 300만원 미만	21	3.20	.341		
	300 ~ 400만원 미만	12	3.60	.225		
	400만원 이상	7	4.04	.393		
종교	있음	51	3.27	.519	1.41	.163
	없음	19	3.08	.457		

삶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보여주듯이 물질적인 만족도 보다는 정신적인 만족도가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데 큰 요인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조사되었던 각종 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아도 정신적인 부분이 삶의 만족 정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독립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하고, 설문조사와 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한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연관성을 토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기 전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즉, 독립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만족도, 물질적 만족도와 종속변수인 자녀 양육 태도의 하위영역인 애정, 자율, 거부, 통제 유형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표 4-9> 삶의 만족도와 양육 태도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N=70)

변수	정신적 만족도	물질적 만족도	애정 유형	자율 유형	거부 유형	통제 유형
정신적 만족도	1.00					
물질적 만족도	.48 **	1.00				
애정 유형	.54 **	.74 **	1.00			
자율 유형	.62 **	.41 **	.53**	1.00		
거부 유형	-.49 **	-.76 **	-.85**	-.53**	1.00	
통제 유형	-.62 **	-.58 **	-.79**	-.54**	.73**	1.00

주) ** : $p < .01$

분석결과를 <표 4-9>에서와 같이 독립변수 항목 간의 상관관계, 종속변수 항목 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48로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신적 만족도가 높으면 물질적 만족도도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종속변수인 자녀 양육 태도의 하위 영역인 4가지 유형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85 \sim .74$ 의 범위를 지니며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애정 유형과 자율 유형의 관련성은 .53으로 애정이 많은 경우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다고 볼 수 있고, 애정 유형과 거부 유형의 상관관계수는 $-.85$ 이고, 애정 유형과 통제 유형의 상관관계수는 $-.79$ 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것은 애정이 많은 경우 자녀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적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 유형과 거부 유형 및 통제 유형 또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경우 거부 및 통제의 경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부 유형과 통제 유형의 상관관계수는 .73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통제를 많이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수는 $-.76 \sim .74$ 로 절대값으로 0.4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는 기준에 의하면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 항목과 애정 유형과 자율 유형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로 만족도가 높으면 애정이 많고 자율적인 가정환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 항목과 거부유형과 통제유형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로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통제적인 가정환경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항목 간에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호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은 다른 변수들에 대한 통제가 없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만 분석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채 특정 변수의 영향을 확인하는 회귀 분석을 하였다.

2) 회귀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녀 양육 태도의 유형인 애정 태도, 자율 태도, 거부 태도, 통제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때 사용하는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0>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베타	t	R2	F
애정	정신적 만족도	.398	.244	2.766	.586	49.834***
	물질적 만족도	.946	.627	7.116***		
자율	정신적 만족도	.595	.546	5.054***	.377	21.876***
	물질적 만족도	.146	.145	1.343		
거부	정신적 만족도	-.246	-.166	-1.880	.584	49.514***
	물질적 만족도	-.930	-.679	-7.695***		
통제	정신적 만족도	-.767	-.447	-4.503***	.475	32.246***
	물질적 만족도	-.582	-.367	-3.700***		

주) *** $p < .001$

<표4-10>의 회귀분석 결과를 기초로 각 회귀모형이 적합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F값을 보면 각 모형의 유의 수준이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어 모두 설명이 가능한 모형으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각 회귀모형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자녀 양육 태도를 설명해 주는 정도를 보면 애정적 태도는 59%, 자율적 태도는 38%, 거부적 태도는

58%, 통제적 태도는 48%로 각 항목의 설명력에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네 개의 모형 중 애정적 태도에 대한 회귀모형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각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두 개의 변수, 즉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의 경우에는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우선 애정적 태도에는 정신적 만족도 및 물질적 만족도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물질적 만족도가 정신적 만족도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계수가 .946으로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자율적 태도에는 단지 정신적 만족도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들이 정신적으로 만족할수록 자식들에게 자율성을 허용하는 성향이 있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는 자녀에 대한 자율성을 허용하는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태도는 자율적 태도와는 달리 물질적 만족도만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질적 만족도의 계수가 -.932로 나타난 것을 보면 부모의 물질적 만족도, 즉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요구나 행동 및 태도에 강한 거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적 태도의 경우에는 애정적 태도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가 모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수록 자녀 교육에 있어 매우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정신적 만족도가 물질적 만족도보다 이 같은 통제적 태도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는 점을 볼 때 부모의 제한적이고 강압적인 교육 태도는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보다 정신적 요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각 회귀모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보았다. <표 4-11>에서 F값을 보면 각 모형의 유의 수준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어 삶의 만족도로 자녀의 양육 태도를 설

명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태도는 60%, 부정적 태도는 58%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태도에 대해 유사한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볼 때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 비슷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 중에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은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적 태도에서는 물질적 만족도의 영향력 계수가 .556로 정신적 만족도의 영향력 계수인 .485보다 크게 나타났고, 부정적 태도에서도 물질적 만족도의 영향력 계수가 -.758로 정신적 만족도의 영향력 계수인 -.508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보았을 때 결혼이주여성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만족했을 때, 긍정적인 양육 태도가 강화되고 부정적인 양육 태도가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베타	t	R2	F
긍정적 태도	정신적 만족도	.485	.405	4.675***	.599	52.557***
	물질적 만족도	.556	.502	5.794***		
부정적 태도	정신적 만족도	-.508	-.339	-3.809***	.578	48.240***
	물질적 만족도	-.758	-.547	-6.145***		

주) *** p < .001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차로 성장해 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성장하는 환경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 삶의 만족도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결혼이주여성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중에서 정신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을 종교 활동, 취미 활동, 가정환경, 한국어 사용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고, 물질적인 지표를 나타내는 부분은 월수입, 사회활동, 업무적 관계, 다문화 지원정도 항목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적인 만족도 면에서 살펴보면 가정생활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는 유형은 자녀가 1명이며, 다른 가족 없이 부부와 자녀만 생활하고, 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미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부분을 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수입이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에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정신적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은 종교 생활과 직장 생활임을 알 수 있다.

물질적인 만족도 면에서 살펴보면 가정경제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는 유형은 거주기간이 5년 미만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월수입이 많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 활동을 통해 만족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은 종교가 있고 월수입이 많은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로 보아 물질적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은 월수입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정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정신적 삶의 만족도와 물질적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정신적 삶의 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연관성을 <표 5-1>에서 살펴보면 자녀 양육 태도 중에 ‘애정적 태도’는 정신적 만족도가 평균(3.4) 이상일 때 ‘4.36’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평균(3.4) 미만일 때 ‘3.41’로 보통(3.0) 이상으로 나타나서 두 항목 간의 연관성은 정신적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 태도’는 정신적 만족도가 평균(3.4) 이상일 때 ‘3.81’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평균(3.4) 미만일 때에도 ‘3.50’으로 보통(3.0) 이상으로 나타나서 두 항목 간의 연관성도 ‘애정적 태도’처럼 정신적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거부적 태도’는 정신적 만족도가 평균(3.4) 미만일 때 ‘3.32’고, 평균(3.4) 이상일 때 ‘2.69’로 정신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거부적 태도가 낮게 나타나고, ‘통제적 태도’ 또한 정신적 만족도가 평균(3.4) 미만일 때, ‘3.59’이고, 평균(3.4) 이상일 때 ‘2.47’로 정신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제적 태도가 낮게 나타나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정신적 만족도와 반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정신적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 중 긍정적인 부분인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서 자녀들을 많은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다고 볼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인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낮게 나타나서 자녀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통제 또는 규제보다는 자녀를 믿고 맡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물질적 삶의 만족도에 따른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연관성을 <표 5-1>에서 살펴보면 자녀 양육 태도 중에 ‘애정적 태도’는 물질적 만족도가 평균(3.2) 이상일 때 ‘4.31’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평균(3.2) 미만일 때

‘3.58’로 보통(3.0) 이상으로 나타나서 두 항목 간의 연관성은 물질적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율적 태도’는 물질적 만족도가 평균(3.2) 이상일 때 ‘3.94’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평균(3.2) 미만일 때에도 ‘3.42’로 보통(3.0) 이상으로 나타나서 두 항목 간의 연관성도 ‘애정적 태도’처럼 물질적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거부적 태도’는 물질적 만족도가 평균(3.2) 미만일 때 ‘3.40’이고, 평균(3.2) 이상일 때 ‘2.52’로 물질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거부적 태도가 낮게 나타나고, ‘통제적 태도’ 또한 물질적 만족도가 평균(3.2) 미만일 때, ‘3.34’이고, 평균(3.2) 이상일 때 ‘2.57’로 물질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통제적 태도가 낮게 나타나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물질적 만족도와 반대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물질적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 중 긍정적인 부분인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높게 나타나서 자녀들을 많은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다고 볼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인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낮게 나타나서 자녀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통제 또는 규제보다는 자녀를 믿고 맡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만족도와 물질적 만족도로 표현되는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 태도 중에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높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태도인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낮게 나타나서 자녀 양육에 모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녀의 양육 태도 중에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는 낮게 나타나고, 부정적인 태도인 ‘거부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는 높게 나타나서 자녀 양육에 모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 정신적 만족도, 물질적 만족도와 자녀양육 태도와의 관계

양육태도	정신적 만족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애정	평균미만 (1~3.3)	31	3.41	.514	-9.39***	.000
	평균이상 (3.4~5)	39	4.36	.258		
자율	평균미만 (1~3.3)	31	3.50	.632	-2.32*	.023
	평균이상 (3.4~5)	39	3.81	.512		
거부	평균미만 (1~3.3)	31	3.32	.707	4.28***	.000
	평균이상 (3.4~5)	39	2.69	.468		
통제	평균미만 (1~3.3)	31	3.59	.582	8.87***	.000
	평균이상 (3.4~5)	39	2.47	.476		

양육태도	물질적 만족도	표본	평균	표준 편차	t	유의 확률
애정	평균미만 (1~3.1)	36	3.58	.588	-6.23***	.000
	평균이상 (3.2~5)	34	4.31	.376		
자율	평균미만 (1~3.1)	36	3.42	.588	-4.17***	.000
	평균이상 (3.2~5)	34	3.94	.453		
거부	평균미만 (1~3.1)	36	3.40	.590	7.52***	.000
	평균이상 (3.2~5)	34	2.52	.369		
통제	평균미만 (1~3.1)	36	3.34	.737	4.87***	.000
	평균이상 (3.2~5)	34	2.57	.576		

주) *** p < .001 , * p < .05

제 2 절 정책적 제언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제도적으로 변화 시기에 맞는 현실적인 준비가 미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에 맞춘 적절한 정책의 대책 수립 및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할 정책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을 보면 결혼이주여성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정착을 위한 정책,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이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결혼이주 여성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이와 연계하여 12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초점을 맞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듯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다문화 사회의 미래가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 제고와 긍정적인 자녀 양육 태도의 형성은 다문화 여성의 순조로운 정착뿐만 아니라 훗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에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태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이다. 지금껏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삶의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층 관찰을 통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면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단위로 12세미만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여 해당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자녀양육태도가 연관된 부분에 대한 관찰과 개선을 반복하는 실질적인 연구체계가 정부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이 활발한 종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교 단체와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체계화 하여야 한다. 종교 단체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서툰 한국말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장소 제공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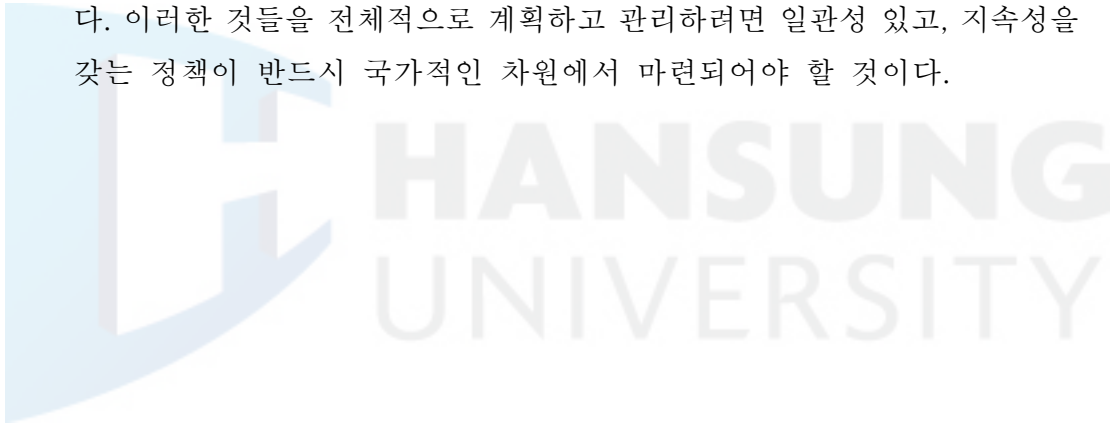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태도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 간의 연관성에 대한 양방향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초등학교 내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별로 문제점 및 해결책을 도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되는 부분과 연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육태도 형성과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실질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단위로 미취업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취업 교육 실시, 기 취업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맞춤형 부부를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도 지원 등 단편적이 아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일회성의 취업 지원 보다는 향후 자녀의 수가 늘어나거나 자녀가 성장해 감에 따라 보육 및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취업 후에도 직장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 지속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시점에서 발생되어 있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점과 이로 인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 및 홍보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의 주도하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공익광고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 사

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학교에서도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되어 점차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다문화 사회화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다문화 가정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누적되어 간다면 현재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국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수용이 아닌 통합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 가정을 만들고, 다문화 가정이 모여 다문화 사회가 생겨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닌 하나의 사회이므로 그 안에서 복합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성을 갖는 정책이 반드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구영,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 :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2), 187-219.
- 김선희. (2013).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아람. (2008). “1950 ~ 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역사전공 석사학위 논문.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카톨릭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영, 민하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삶의 만족도가 애정적-거부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137-155.
- 김지영, 안성훈. (2014).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연구총서』, 13-AB-04. 서울: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김지현. (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를 위한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진희,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 만족도 비교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127-160.
- 김한성,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 지역적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7집 제2호(2013년), 177-209.
- 김현선. (1997). “기지촌 여성·혼혈아동 실태와 사례”. 서울: 새움터 소식지.
- 김현옥. (2012). “다문화가정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화수, 황상심. (2008). “다문화 가정의 언어 환경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및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 언어청각 임상학회

-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서울 : 후마니타스.
- 박삼수, 임경희. (2008). “정상가정과 결손가정 청소년의 가족기능과 심리사회적 성숙도의 관계”. 『상담평가 연구』, 제1권, 제2호.
- 박효주. (2011). “부모의 양육태도와 만4세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연민아.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만석. (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여섯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연구』. 제 4권, 1호, 43-77.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아동의 성정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글교육』. 제 32권, 제3호.
- 이경수. (2011). “프랑스 다문화교육 정책 무엇이 강점인가?”. 『프랑스 문화예술 연구』. 제35집(2011), 751-776.
- 이민아. (2010). “이민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우울도와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27호, 31-60.
- 이성미. (2012). 『다문화 정책론』. 서울 : 박영사. 22-23.
- 이용재. (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고찰 : 제도적, 비제도적 차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인간』. 1권, 2호, 235-268.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분.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국제결혼 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 교육개발원.
- 이향범. (2012).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결혼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선. (2015).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 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한국융합인문학』 . 제3권, 제2호, 7-24.
- 장미혜 외. (2008).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2”. 서울 :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장지혜, 설동훈. (2006). “여성 결혼이주자의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2006년 한국사회학 대회 자료집』 . 한국 사회학, 85-86.
- 장한업. (2011).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서울 : 이중 언어학회.
- 한남주. (2009). “다문화 가정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 :
영남대학교.
- 허명옥. (2009). “다문화가족의 평생교육 요구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 Belsky, J, Rovine. M , and Taylor. D.G.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Child Development』 . Vol.55.
- Shin, Doh C. and Johnson.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 Research』 , 5:
475-492.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 vol. 59, 226-235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분석』 .
- 여성가족부. (2017). 『1~3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
- 통계청. (2017). 『통계청 > 통계포털(KOSIS)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외
국인 : 관련 DATA 발췌 및 작성』 .
-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결과』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7). 『2016년도 다문화 가정 이혼상담 통계』 .
- 법무부. (2017). 『방문취업 안내문』 .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 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회에서의 문화적응 및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과정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이들의 삶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활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이 현재 생활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과 자녀들의 개선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하고 실질적인 응답 내용은 이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그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명으로 실시되므로 개인적인 내용은 절대 알려질 수 없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가 의미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 당신의 일반적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되는 번호에 V 또는 O 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인 경우는 직접 써주세요)

1. 당신의 나이는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2. 당신 남편의 나이는 ?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3. 당신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이상

4. 당신의 가족은 누구누구입니까 ?

①부부 + 자녀 ②부부 + 자녀 + 남편 가족(시부모 또는 형제 등)

③본인 + 자녀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 ④기타 ()

5. 당신이 태어난 나라는 ? (기타인 경우 나라이름을 적어 주세요)

①조선족 ②중국 ③일본 ④베트남 ⑤ 필리핀 ⑥기타()

6. 당신은 한국에 온 지 몇 년 정도 되었나요?

①1년 미만 ②1년 ~ 3년 미만 ③3년 ~ 5년 미만 ④5년 이상

7. 당신은 현재 직접 돈을 벌고 있나요?

① 예 ②아니요

7-1. 직접 돈을 벌고 있는 경우에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①직접 장사 ②음식점 ③회사 ④가사도우미 ⑤ 기타 ()

8. 현재 한 달 수입(남편+본인)은 얼마정도 인가요?

①월 100만원 미만 ②월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월 200만원 ~ 300만원 미만 ④월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월 400만원 초과

9. 다문화가정을 도와주는 제도(생활지원, 자녀교육지원)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①잘 알고 있다 ②대충 알고 있다 ③모르고 있다

10. 당신의 종교는 ?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이슬람교 ⑤없음 ⑥기타()

II.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V 또는 O 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호	질문내용	많이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많이 그렇다
1	종교 있음- 종교 활동을 잘 하고 있다. 종교 없음- 종교 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취미활동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지금 가족들과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말을 잘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생활은 지금 월수입으로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돈 버는 것 이외에 다른 사회활동 (친구 모임 등)을 많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일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움(생활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이 많아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질문

※ 해당하는 항목에 V 또는 O 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 호	질 문 내 용	많이 아니 다	조금 아니 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많이 그렇 다
1	아이들을 자주 칭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들 자신이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들이 혼자 여행을 가도 허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표현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현재 아이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고쳐야 할 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들이 속을 썩여 화내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들이 집에서 지켜야 할 규칙은 많을 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이들의 꿈은 혼자 정하지 말고 꼭 부모와 상의해서 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The Effect of Satisfaction life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on Parenting Attitudes

Cho, Yong-Jai

Addiction Prevention & Education

Dept. of Drug & Alcohol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It has been believed that parenting of mother has the important role on childhood in which fundamental personality of human is formulated and wholeness education begins, Thu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d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which had the direct effect on learning ability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ildren in creasing multi-cultural family recently in Korea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extent of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parenting. First, to measur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life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two factors, i.e., mental part and material part. With respect to mental part, sub-factors consisted of religious activity, hobby activity, satisfaction of family life, and the extent of usage of korean language, as well, for material part, sub-factors consisted of monthly income, social activity, business relation, and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support policy. To measure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 whether parenting

attitude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was positive or negative through survey questionnaire relevant to positive aspect (autonomy and affection) and negative affect (control and denial) was investigated.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checked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parenting attitude of mother which had the important role on growth of children and suggested the intervention and solution on problem involved in marriage immigrant female.

First, to identify percep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Coll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on family satisfaction, hobby satisfaction, family economy satisfaction,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between religion or not, job or not, family membership, and monthly income. This findings indicated that percep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focused on individual life style and to meet life satisfaction of them, the policy support of government reflecting this circumstance should be needed.

Next, to examine th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on parenting attitude, prior to regression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ub-factors of in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i.e., both mental and material satisfaction and sub-factors of dependent variable, parenting attitude, i.e., affection, autonomy, denial, and control was conducted. The finding showed as follows. The higher mental satisfaction was, so material satisfaction increased, There wa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sub-factors of parenting attitude, i.e., affection and autonomy, as well, there was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sub-factors of parenting attitude, i.e., denial and control, whereas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ub-factors. Focused on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 of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affective attitude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material satisfaction, autonomous attitude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mental satisfaction, denial attitude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material satisfaction, and control attitude had the significant effect on mental satisfaction. In sum, marriage immigrant female was satisfied with sub-factor of life satisfaction, i.e., material part, which intended to foster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whereas intended to weaken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This findings concluded that material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was determined depending on job or not and monthly income, while mental satisfaction was determined depending on religious and hobby activity, and as overall life satisfaction increased, so th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the high level, while th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had the low. Differences on family satisfaction, hobby satisfaction, family economy satisfaction, social activity satisfaction, and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between job or not, family membership, and monthly income. Consequentl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uitably to adapt to the future society in Korea through the proper growth, policy planning and project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should be designed.

In this sense, for first marriage immigrant female to adapt to dominant society with being involved in positive religious activity, effect of religious institution as well as support of government should be needed. Second, intervention and project to improve economic situation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should be considered and planned. Here, particularly the procedural and systemic linkage such as employment of marriage immigrant female as well as employment training and child-care service should be provided. Finally, for the dominant member of major society in order to change perception on multi-cultural family, consistent campaign and education of government with mass media should be given simultaneously.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immigrant female, life satisfaction, parenting attitude.

